

비전이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변상우* · 허갑수**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비전의 유·무 및 명확성이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비전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비전이 명확하고, 비전을 구체화시켜서 비전을 자신의 삶의 목표로 삼을 수 있는지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대학생활을 하는 대학생일수록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감, 열정, 소속감이 강했으며, 학교생활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닥치는 좌절 상황에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부단히 노력한 결과 결국에는 자신의 삶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아직도 많은 대학생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학교생활을 하는 대학생이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비전이 대학생에게 미치는 영향과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자신의 비전을 빠른 시간 내 가질 수 있도록 학교, 학과, 부모, 선배 등이 비전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대학생들이 자신의 비전을 찾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해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 설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제 학교가 나서서 비전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 그에 대한 구체적 방법으로 비전 찾기 캠프 실시, 비전 찾는 방법에 대한 교육, 다양한 분야의 독서, 리더십 강좌 개설 등을 통해 자신의 명확한 비전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핵심주제어 : 비전, 학교생활, 만족감, 열정, 소속감

논문접수일: 2014년 07월 10일 수정일: 2014년 08월 31일 게재확정일: 2014년 09월 21일

† 이 논문은 2014학년도 부산가톨릭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

* 부산대학교 교육인증지원센터 전임대우강사(제1저자), bsw0378@hanmail.net

** 부산가톨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교신저자), ksheo@cup.ac.kr

I. 서론

우리 인간은 자기 마음속에서 불같은 열정, 하고 싶은 욕망, 이루고 싶은 소원과 소망이 마음속에서 계속 끓어오를 때 그것을 목표로 삼아서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자신의 삶을 성공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이 바로 비전을 갖는 것이다.

오늘날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자신이 미래 이루고자 하는 비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자신이 미래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오늘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깨어 있으면 그 꿈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이 시대의 성공한 리더는 모두가 자신의 소중한 비전을 간직하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부단히 자신을 계발하고 열정을 다 받쳐 자신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이처럼 비전은 간직한 사람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이정표 역할을 하게 된다(변상우, 2014).

올바른 학교생활은 자신의 미래를 보다 밝게 해주는 지름길이다. 보다 알찬 학교생활을 위해서는 여러 요인들이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면서 중요한 것이 바로 비전이 될 것이다. 이처럼 개인의 삶에 중요한 것이 비전을 간직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에게 비전이 뭐냐고 질문하면 제대로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비전은 자신의 삶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열정을 쏟아 붓게 하는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소중히 간직하고 항상 생각하며 자신의 인생의 이정표로 삼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비전이 실제로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부족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전이 학교생활에 미치

는 영향(태도)에 대해 실증분석을 통해 학생들에게 비전이 주는 효과를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이 보다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비전의 정의

비전은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그것이 언젠가는 달성될 것이라는 신념을 제공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비전을 꿈과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 인간은 미래를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비전을 갖게 되고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한다. 그러므로 미래에 대한 기대는 인간의 삶에 기쁨과 활력을 불어 넣어 주는 청량제와 같다. 누구나 자신만이 간직하고 있는 비전이 있어야 삶의 의욕도 생기고 몸과 마음이 건강해진다. 따라서 비전은 우리의 삶에 있어 방향을 설정해 주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미래로 나아가는 데 있어 이정표나 북극성과 같은 역할을 한다(변상우, 2012).

2. 비전의 기능

비전은 자신의 미래 목표 달성을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 김호동(2009)은 청소년기의 빠른 목표 설정은 취업성공 여부뿐만 아니라 취업 이후의 업무 만족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처럼 학생들이 자신의 비전은 하루라도 빨리 자기 것으로 구체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비전의 기능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허갑수·변상우, 2013).

2.1 현재와 미래 연결

비전은 현재 상태에서 시작해 미래 조직이 도

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비전이 있는 사람은 미래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게 된다. 비전이 명확한 사람은 자신이 살아갈 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

2.2 열정과 헌신 고무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열정을 받치게 된다. 그러므로 비전은 자신이 하는 일에 헌신하도록 만들게 된다. 따라서 비전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2.3 일의 의미 고취

우리 인간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존엄성과 의미를 발견하기를 원한다. 일을 수행할 때 자신이 하는 일에 더 큰 목표를 갖게 될 때 보람과 긍지를 갖게 된다. 예를 들면 석조건물을 짓고 있는 석공이더라도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웅장하고 위대한 건축물을 지금 짓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일하게 되면 결국 미래 인류역사에 위대한 건축물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2.4 수월성 기준 제시

비전을 가진 사람은 모든 면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자신의 노력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시켜 준다. 비전은 미래상을 분명히 밝혀 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어떻게 공헌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비전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위협을 감수할 수 있는 용기도 심어준다.

3. 비전의 표현 형태

대학생들에게 본인의 비전이 무엇인냐고 물으면 그에 대한 대답을 잘 못한다. 그 이유는 그냥 막연하게 어떤 명확한 목표와 방향을 갖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때문이다. 비전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미래 자신이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인 비전을 머릿속에 그려 보아야 한다. 비전은 몇 년 후 혹은 10년 후, 20년 후 어떤 상태에 도달해 있을 것인가를 그려보는 것이다. 이런 비전은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간결하고 생생한 감동적인 표현으로 나타내어야 한다.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의 감동을 주어야 한다.

둘째, 자신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말로 표현되어야 한다. 원대하고 대담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 먼 훗날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꿈이 실현될 때의 자신의 모습이 명확히 그려져 있어야 한다.

셋째,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표현되어야 한다.

넷째, 관점이 명확하고, 미래 자신이 무엇을 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한 용어로 표현해야 한다.

다섯째, 자신의 변화와 자신의 성장을 자극할 수 있게 표현되어야 한다.

여섯째, 비전은 웅대하고 거창해야 한다. 단 자신의 역량을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수준에서 표현하여야 한다.

4. 비전과 행동과의 관계

성공한 사람은 모두 비전을 전략적 행동으로 연결시켜 실천한 사람들이다. Hitt(1988)는 비전을 실천하는 정도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설명했다.

첫째, 방관자 유형이다. 비전도 없고 비전을 이루기 위한 행동도 하지 않은 사람은 방관자로서 이런 유형의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

둘째, 행동가이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행동을 하기는 하지만 비전이 없이 단순히 바쁘기만 하다. 따라서 맹목적으로 일을 하고, 목적의식과 방향이 없기 때문에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셋째, 몽상가이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비전은

가지고 있지만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인 행동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가지고 있는 비전은 환상에 불과하다.

넷째, 효과적 리더이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명확한 자신의 비전이 있고, 그 비전을 전략적 행동으로 옮긴다. 따라서 모든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조직에서 성공하게 된다.



<그림 1> 비전과 행동과의 관계

Ⅲ. 비전이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1. 연구대상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경남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 4월 7일부터 5월 13일까지 설문을 조사했으며 설문 응답자 382명을 표본으로 하여 SPSS 21K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를 통계처리하였다.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의 유·무와 학교생활의 태도(만족감, 소속감, 열정, 좌절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분석방법으로는 빈도분석, 기술통계의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학생들의 인구 통계적 특성을 보면 <표 1>과 같다. 총 382명 중 남자가 314명(82.2%), 여자가 68명(17.8%)이다. 학년별 분포를 보면 1학년이 98명(25.7%), 2학년이 91명(23.8%), 3학년이 114명(29.8%), 4학년이 79명(20.7%)이다. 학생들의 학점을 보면 2.5 이하인 학생이 18명(4.7%), 2.5~3.0 미만인 학생이 63명(16.5%), 3.5~3.5 미만인 학생이 150명(39.3%), 3.5~4.0 미만인 학생이 124명(32.5%), 4.0 이상인 학생이 27명(7.1%)이다. 학생들의 자격증 소유 여부를 보면 자격이 전혀 없는 학생이 147명(38.5%), 1개가 114명(29.8%), 2개가 86명(22.5%), 3개가 21명(5.5%), 4개 이상이 14명(3.7%)이다.

<표 1> 표본의 인구 통계적 특성

변수	구분	빈도	%
성별	남	314	82.2
	여	68	17.8
	계	382	100.0
학년	1학년	98	25.7
	2학년	91	23.8

	3학년	114	29.8
	4학년	79	20.7
	계	382	100.0
학점	2.5 이하	18	4.7
	2.5~3.0 미만	63	16.5
	3.5~3.5 미만	150	39.3
	3.5~4.0 미만	124	32.5
	4.0 이상	27	7.1
	계	382	100.0
자격증	무	147	38.5
	1개	114	29.8
	2개	86	22.5
	3개	21	5.5
	4개 이상	14	3.7
	계	382	100.0

2. 비전에 대한 분석

비전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표 2>와 같

다. 전체 응답자 중 177명(45.8%)이 자신의 비전이 명확하다고 응답한 반면 205명(54.2%)은 아직 자신의 미래 비전이 분명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표 2> 비전에 대한 분석 결과

변수	구분	빈도	%
비전	유	177	45.8
	무	205	54.2
	계	382	100.0
비전을 가진 시기	초등학교 이전	2	1.1
	초등학교	9	5.1
	중학교	14	7.9
	고등학교	50	28.2
	대학교	102	57.6
	계	177	100.0
비전을 갖게 영향을 미친 인물	부모	17	9.6
	스스로	105	59.3
	형제·자매	5	2.8
	선생님	6	3.4
	친구	15	8.5
	대중매체	12	6.8
	기타	17	9.6
	계	177	100.0
비전을 가진 계기	비전 캠프 참가	8	4.5
	위인전(책)	11	6.2
	성공한 사람과 만남	46	26.0
	롤 모델	49	27.7
	기타	63	35.6
	계	177	100.0

비전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그 비전을 가지게 된 시기를 보면 초등학교 이전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2명(1.1%), 초등학교 때 9명(5.1%), 중학교 때 14명(7.9%), 고등학교 때 50명(28.2%), 대학교 때 102명(57.6%)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교에 들어와서 비전(꿈)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비전을 갖는데 영향을 준 사람으로는 본인 스스로 갖게 되었다고 응답한 사람이 105명(59.3%)이고, 부모 17명(9.6%), 기타 17명(9.6%), 친구 15명(8.5%), 대중매체 12명(6.8%), 선생님 6명(3.4%), 형제·자매 5명(2.8%) 순으로 나타났다. 비전을 갖게 된 계기로는 롤 모델 49명(9.6%) 성공한 사람과의 만남 46명(26.0%), 위인전(책) 11명(6.2%), 비전 캠프 참가 8명(4.5%) 순으로 나타났다.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많은 학생들이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비전을 가지게 되었다고 응답했는데 그 비전을 찾는 과정이 자신의 적성, 소질, 간절함, 희망 등이 반영된 결과가 되어야지 즉흥적이거나 타인의 영향에 의해 결정되었다면 오히려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

3. 인구 통계적 특성별 비전 유·무 분석

조사 대상 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비전 유무를 보면, 남학생의 경우 153명(48.7%)이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161명(51.3%)은 자신의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여학생의 경우 22명(32.4%)이 비전을 가지고 있지 만 46명(67.33%)은 자신의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표 3> 인구 통계적 특성에 따른 비전의 유·무에 따른 차이 분석

변수	구분	비전(유)	비전(무)	전체
성별	남	153(48.7)	161(51.3)	314(100)
	여	22(32.4)	46(67.6)	68(100)
	Pearson χ^2 : 6.036, 자유도: 1, p < .014**			
학년	1학년	48(49.0)	50(51.0)	98(100)
	2학년	32(35.2)	59(64.8)	91(100)
	3학년	53(46.5)	61(53.5)	114(100)
	4학년	42(53.2)	37(17.9)	79(100)
	Pearson χ^2 : 6.293, 자유도: 3, p < .098*			
학점	2.5 이하	6(33.3)	12(66.7)	18(100)
	2.5~3.0 미만	33(52.4)	30(47.6)	63(100)
	3.0~3.5 미만	60(40.0)	90(60.0)	150(100)
	3.5~4.0 미만	61(49.2)	63(50.8)	124(100)
	4.0 이상	15(55.6)	12(44.4)	27(100)
	Pearson χ^2 : 5.869, 자유도: 4, p < .209			
자격	무	67(45.6)	80(54.4)	147(100)
	1개	45(39.5)	69(60.5)	114(100)
	2개	43(50.0)	43(50.0)	86(100)
	3개	12(57.1)	9(42.9)	21(100)
	4개 이상	8(57.1)	6(42.9)	14(100)
	Pearson χ^2 : 4.266, 자유도: 4, p < .371			

* : p < 0.1 ** : p < .05

따라서 유의수준 $p < 0.05$ 에서 남학생과 여학생 사이에 비전 유무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자신의 비전을 간직하고 학교생활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년별 비전 유무를 보면 4학년 학생 중 53.2%가 비전을 가지고 있는 반면 2학년은 35.2%만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학년별 비전의 유무에 대한 차이 분석결과 유의수준 $p < 0.1$ 에서 비전 유무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학년 일수록 자신의 비전이 명확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학점, 자격증의 수에 따른 비전의 유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인구 통계적 특성별 학교생활 태도

인구 통계적 특성별 학교생활 태도(만족감)에 관한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인구 통계적 특성 중 학점과 학교생활의 만족도는 유의수준 $p < 0.01$ 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점이 높은 학생일수록 학교생활에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남녀별, 학년 간에 학교생활의 만족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상우(2012)의 글로벌 공학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리더십 역량연구에서도 인구 통계적 특성에 따른 리더십역량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인구 통계적 특성별 학교생활 태도(만족감)

		만족감					전체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성별	남	12(3.8)	30(9.6)	140(44.6)	107(34.1)	25(8.0)	314(100)
	여	1(1.5)	5(7.4)	38(55.9)	20(29.4)	4(5.9)	68(100)
	전체	13(3.4)	35(9.2)	178(46.6)	127(33.2)	29(7.6)	382(100)
		Pearson χ^2 : 3.418, 자유도: 4, P<.490					
학년	1학년	4(4.1)	9(9.2)	50(51.0)	29(29.6)	6(6.1)	98(100)
	2학년	5(5.5)	10(11.0)	40(44.0)	25(27.5)	11(12.1)	91(100)
	3학년	3(2.6)	13(11.4)	51(44.7)	41(36.0)	6(5.3)	114(100)
	4학년	1(1.3)	3(3.8)	37(46.8)	32(40.5)	6(7.6)	79(100)
	전체	13(3.4)	35(9.2)	178(46.6)	127(33.2)	29(7.6)	382(100)
		Pearson χ^2 : 12.962, 자유도: 12, P<.334					
학점	2.5이하	6(33.3)	3(16.7)	6(33.3)	2(11.1)	1(5.6)	18(100)
	2.5~3.0	2(3.2)	6(9.5)	32(50.8)	20(31.7)	3(4.8)	63(100)
	3.0~3.5	3(2.0)	18(12.0)	76(50.7)	45(30.0)	8(5.3)	150(100)
	3.5~4.0	2(1.6)	8(6.5)	57(46.0)	44(35.5)	13(10.5)	124(100)
	4.0이상	0(0)	0(0)	7(25.9)	16(59.3)	4(14.8)	27(100)
	전체	13(3.4)	35(9.2)	178(46.6)	127(33.2)	29(7.6)	382(100)
		Pearson χ^2 : 74.031, 자유도: 16, P<.000***					

*** : $p < 0.01$

인구 통계적 특성별 학교생활 태도(소속감)에 관한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인구 통계적 특성 중 학점과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소속감에는 유의수준 $p < 0.01$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즉, 학점이 높은 학생일수록 학교에 대한 소속감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남녀별, 학년 간에 학교생활의 만족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인구 통계적 특성별 학교생활 태도(소속감)

		소속감					전체
		전혀 없다	없다	보통	강하다	매우 강하다	
성별	남	17(5.4)	59(18.8)	124(39.5)	83(26.4)	31(9.9)	314(100)
	여	4(5.9)	12(17.6)	28(41.2)	21(30.9)	3(4.4)	68(100)
	전체	21(5.5)	71(18.6)	152(39.8)	104(27.2)	34(8.9)	382(100)
Pearson χ^2 : 2.381, 자유도: 4, P<.666							
학년	1학년	6(6.1)	24(24.5)	38(38.8)	24(24.5)	6(6.1)	98(100)
	2학년	2(2.2)	17(18.7)	40(44.0)	24(26.4)	8(8.8)	91(100)
	3학년	8(7.0)	20(17.5)	45(39.5)	28(24.6)	13(11.4)	114(100)
	4학년	5(6.3)	10(12.7)	29(36.7)	28(35.4)	7(8.9)	79(100)
	전체	21(5.5)	71(18.6)	152(39.8)	104(27.2)	34(8.9)	382(100)
Pearson χ^2 : 10.666, 자유도: 12, P<.558							
학점	2.5이하	6(33.3)	5(27.8)	5(27.8)	2(11.1)	0(0)	18(100)
	2.5~3.0	3(4.8)	10(15.9)	30(47.6)	17(27.0)	3(4.8)	63(100)
	3.0~3.5	8(5.3)	35(23.3)	59(39.3)	39(26.0)	9(6.0)	150(100)
	3.5~4.0	4(3.2)	18(14.5)	51(41.1)	35(28.2)	16(12.9)	124(100)
	4.0이상	0(0)	3(11.1)	7(25.9)	11(40.7)	6(22.2)	27(100)
	전체	21(5.5)	71(18.6)	152(39.8)	104(27.2)	34(8.9)	382(100)
Pearson χ^2 : 51.388, 자유도: 16, P<.000***							

*** : p<0.1

인구 통계적 특성별 학교생활 태도(열정)에 관한 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학생들의 성별, 학년, 학점에 따라서는 학교생활의 열정과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인구 통계적 특성별 학교생활 태도(열정)

		열정					전체
		전혀 없다	없다	보통	있다	매우 있다	
성별	남	5(1.6)	27(8.6)	88(28.0)	134(42.7)	60(19.1)	314(100)
	여	1(1.5)	10(14.7)	19(27.9)	26(38.2)	12(17.6)	68(100)
	전체	6(1.6)	37(9.7)	107(28.0)	160(41.9)	72(18.8)	382(100)
Pearson χ^2 : 2.666, 자유도: 5, P<.751							
학년	1학년	2(2.0)	11(11.2)	29(29.6)	35(35.7)	21(21.4)	98(100)
	2학년	2(2.2)	9(9.9)	27(29.7)	35(38.5)	18(19.8)	91(100)
	3학년	1(0.9)	13(11.4)	35(30.7)	47(41.2)	18(15.8)	114(100)
	4학년	1(1.3)	4(5.1)	16(20.3)	42(53.2)	16(20.3)	79(100)
	전체	6(1.6)	37(9.7)	107(28.0)	159(41.6)	73(9.1)	382(100)
Pearson χ^2 : 12.552, 자유도: 15, P<.637							
학점	2.5이하	0(0)	2(11.1)	4(22.2)	9(50.0)	3(16.7)	18(100)
	2.5~3.0	2(3.2)	7(11.1)	22(34.9)	20(31.7)	12(19.1)	63(100)
	3.0~3.5	4(2.7)	13(8.7)	47(31.3)	66(44.0)	20(13.3)	150(100)
	3.5~4.0	0(0)	15(12.1)	27(21.8)	50(40.3)	32(25.8)	124(100)
	4.0이상	0(0)	0(0)	7(25.9)	14(51.9)	6(22.2)	27(100)
	전체	6(1.6)	37(9.7)	107(28.0)	159(41.6)	73(19.1)	382(100)
Pearson χ^2 : 25.823, 자유도: 20, P<.172							

인구 통계적 특성별 학교생활 태도(좌절감)에 관한 분석 결과는 <표 7>과 같다. 인구 통계적 특성 중 남녀 학생 간의 학교생활에 대한 좌절감에는 유의수준 $p < 0.1$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들이 여성학생에 비해 학교생활에 대한 좌절감이 덜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년, 학점 간에 학교생활의 좌절감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인구 통계적 특성별 학교생활 태도(좌절감)

		좌절감					전체
		매우 크다	크다	보통	없다	전혀 없다	
성 별	남	14(4.5)	62(19.7)	88(28.0)	91(29.0)	59(18.8)	314(100)
	여	5(7.4)	13(19.1)	29(42.6)	15(22.1)	6(8.8)	68(100)
	전체	19(5.0)	75(19.6)	117(30.6)	106(27.7)	65(17.0)	382(100)
Pearson χ^2 : 9.082, 자유도: 4, $P < .059^*$							
학 년	1학년	5(5.1)	20(20.4)	34(34.7)	26(26.5)	13(13.3)	98(100)
	2학년	4(4.4)	24(26.4)	21(23.1)	26(28.6)	16(17.6)	91(100)
	3학년	6(5.3)	24(21.1)	36(31.6)	26(22.8)	22(19.3)	114(100)
	4학년	4(5.1)	7(8.9)	26(32.9)	28(35.4)	14(17.7)	79(100)
	전체	19(5.0)	75(19.6)	117(30.6)	106(27.7)	65(17.0)	382(100)
Pearson χ^2 : 13.361 자유도: 12, $P < .343$							
학 점	2.5이하	1(5.6)	7(38.9)	5(27.8)	4(22.2)	1(5.6)	18(100)
	2.5~3.0	3(4.8)	13(20.6)	25(39.7)	15(23.8)	7(11.1)	63(100)
	3.0~3.5	8(5.3)	26(17.3)	49(32.7)	35(23.3)	32(21.3)	150(100)
	3.5~4.0	6(4.8)	25(20.2)	35(28.2)	39(31.5)	19(15.3)	124(100)
	4.0이상	1(3.7)	4(14.8)	3(11.1)	13(48.1)	6(22.2)	27(100)
	전체	19(5.0)	75(19.6)	117(30.6)	106(27.7)	65(17.0)	382(100)
Pearson χ^2 : 21.079, 자유도: 16, $P < .175$							

* : $p < 0.1$

인구 통계적 특성별 학교생활 태도에 관한 분석 결과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학교생활을 하는 학생일수록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감, 열정, 소속감이 강하고, 대신 학교생활 과정에서 좌절감은 쉽게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학생들에게 비전이 미치는 영향을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전의 유·무에 따른 학생들의 학교생활 태

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비전이 학생들에게 열정($p < 0.05$), 만족감($p < 0.1$), 소속감($p < 0.1$), 좌절감 극복($p < 0.1$) 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일수록 비전이 없는 사람보다 학교생활에 대해 열정, 만족감, 소속감이 더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학교생활에서의 좌절감은 비전이 명확한 학생일수록 좌절감이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비전의 유·무에 따른 학교생활 태도 분석

		만족감					전체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비 전	유	4(2.3)	13(7.4)	67(38.3)	5(42.9)	16(9.1)	175(100)
	무	9(4.3)	2(10.6)	11(53.6)	2(25.1)	13(6.3)	207(100)
	전체	13(3.4)	35(9.2)	78(46.6)	27(33.2)	29(7.6)	382(100)
Pearson χ^2 : 17.028, 자유도: 4, $P < .002^{***}$							

		소속감					전체
		전혀 없다	없다	보통	강하다	매우 강하다	
비전	유	6(3.4)	24(13.7)	56(32.0)	57(32.6)	32(18.3)	175(100)
	무	7(3.4)	49(23.7)	76(36.7)	58(28.0)	17(8.2)	207(100)
	전체	13(3.4)	73(19.1)	132(34.6)	115(30.3)	49(12.8)	382(100)
	Pearson χ^2 : 14.683, 자유도: 5, P < .012**						
		열정					전체
		전혀 없다	없다	보통	있다	매우 있다	
비전	유	2(1.1)	9(5.1)	46(26.3)	76(43.4)	42(24.6)	175(100)
	무	4(1.9)	28(13.5)	61(29.5)	83(40.1)	31(15.0)	207(100)
	전체	6(1.6)	37(9.7)	107(28.0)	159(41.6)	73(19.4)	382(100)
	Pearson χ^2 : 12.631, 자유도: 5, P < .027**						
		좌절감					전체
		매우 크다	크다	보통	없다	전혀 없다	
비전	유	9(5.1)	24(13.7)	54(30.9)	49(28.0)	39(22.3)	175(100)
	무	10(4.8)	51(24.6)	63(30.4)	57(27.5)	26(12.6)	207(100)
	전체	19(5.0)	75(19.6)	117(30.6)	106(27.7)	65(17.0)	382(100)
	Pearson χ^2 : 11.066, 자유도: 4, P < .026**						

** : p < 0.05, *** : p < 0.01

V. 결 론

사람들은 잠을 자면 자연스럽게 꿈을 꾸지만 깨어 있으면서 열심히 자신의 비전(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대학생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비전이 성공적인 삶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그 비전이 명확해야 되며 그 비전을 구체화시켜 자신의 삶의 목표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인생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성공한 사람들의 예에서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도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대학생 활을 하는 학생일수록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감, 열정, 소속감이 강한 반면 학교생활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좌절상황에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아직도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학교생활을 하는 학생들이 절반도 되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학생들이 자신의 비전을 빠른 시간 내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자신의 비전을 찾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해서 아직도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제 학교가 나서서 비전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 그에 대한 일환으로 비전 찾기 캠프 실시, 비전 찾는 방법에 대한 교육, 다양한 분야의 독서, 리더십 강좌 개설 등을 통해 자신의 명확한 비전을 찾아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다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대학생들이 자신의 명확한 비전(꿈)을 확립함으로써 자신이 하는 일이 의미감을 가질 수 있도록 주변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호동(2009), “청소년과 직업-청소년 시기의 꿈, 이를 수 있는 것인가-,” 청소년문화포럼, Vol.22, pp.261-267.
2. 변상우(2012), 글로벌 리더십 개발과 훈련, 도서출판 청람.
3. 변상우(2012), “글로벌 공학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리더십 역량연구,” 공학교육연구 제15권 제5호, pp.125-130.
4. 변상우(2014), 행복하면 성공하게 되고 리더가 된다, 도서출판 청람.
5. 이훈영(2012), 연구조사방법론, 도서출판 청람.
6. 허갑수·변상우(2013), 파워 리더십 개발과 훈련, 도서출판 청람.
7. Hitt, W. D.(1988), *The Leader-Manager: Guidelines for Action*, Columbus, OH: Battelle Press.

Abstract

A Study of the Influences that Visions have on School Life

Byun, Sang-Woo* · Heo, Kap-Soo**

This study is on visions having influence on school life to analyze differences between students who have clear visions and those who do not during school life.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of this study, the influence which visions have on school life has been analyzed by measuring attitudes towards school life (satisfaction, a sense of belonging, passion, and frustration) depending on students who have visions or those who do not.

This analysis shows that the more visions students have, the more satisfaction, a sense of belonging, and passion they have and the less frustration they have. Thus, visions have positive influence on school life and it is essential to reinforce education for students to have clear visions by opening camps to find visions and teaching how to find visions.

Key Words : vision, satisfaction, a sense of belonging, passion, frustration

* Collegiate Professor, Center for Education Accredit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bsw0378@hanmail.net

** Professor,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ksheo@cup.ac.kr